

은혜의 하나님(로마서6:14)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열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열세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법에서 자유 하였으니 옛 율법에서 자유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 사탄의 종, 세상 육신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바울도 과거에 율법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 육신의 종노릇하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옛 율법에서 완전해방 된 증인으로서 너무나 감사하여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 나의 직분

* 누구에게나 직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직분, 엄마직분, 자식, 사장, 부장, 과장,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찬양사역자, 교사, 전도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거룩한 직분들입니다.

(1) 은혜 직

* 이런 크고 작은 직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① 고전15:9-10,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② 딤후1:15-17,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③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 나의 직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나은 직분을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인기가 없는 직분이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기도 직

*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에 나의 지식, 경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무릎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깊은 기도를 하며 하루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① 막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지도 하시더니”

*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려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는 왕의 체면 따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② 시40: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1) 풍성한 은혜

① 시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② 고후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③ 출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 구원의 은혜

① 엡2:4-5, “공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아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② 행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3) 달란트(마25:15) => 은사(벧전4:10)

* 마25: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의 성공이나 돈, 명예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① 재능, 기능, 손재주, 전문성들이

②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사용될 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금주의 미션

(1)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2)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3)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